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115	517	119	123
(수난 기약 다다르니	(내가 절망 속에)	(주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제 1독서 | 이사야서 50,4-7

화답송 |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우)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좌)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 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우)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일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 2독서 | 필리피 2,6-11

복음 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 마르코 14:1-15:47



프란치스코 교황님 - 성지주일 강론

매년 맞이하는 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의 전례는 우리 안에 놀라움의 태도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기쁨에서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을 뵈는 고통으로 건너갑니다. 이는 성주간 내내 우리를 동행할 내적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움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즉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대하게 환영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파스카를 맞아 강력한 해방자를 기다리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희생을 통해 파스카를 이루시려고 오십니다. 사람들은 칼을 통해 로마인들을 압도하는 승리를 기념하기를 기대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느님의 승리를 기념하려고 오십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하던 태도에서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태도로 돌변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 메시아보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메시아 이미지를 더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칭송했지만, 그분을 보고 놀라워할 준비가 안된 것입니다. 놀라움은 칭찬과 다릅니다. 칭찬은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기대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타인에게 열려 있고, 그의 새로움에 열려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좋은 말씀을 하였고, 사랑하였고, 용서하였고, 그분의 본보기가 역사를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칭송하긴 하지만, 자신들의 삶을 바꾸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고, 그분의 도전에 우리 자신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칭송에서 놀라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주님의 파스카에 대해 무엇이 가장 놀랍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굴욕의 길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승리하십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곧 전능하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축소되시는 모습을 보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묵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보는 것. 모든 것을 벗어버리신 우주의 하느님을 보는 것. 영광의 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신 그분을 보는 것. 선하신 그분께서 모욕당하시고 짓밟히시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 이 모든 굴욕을 감내하셨습니까? 주님, 왜 당신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도록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 인간 현실의 밑바닥까

지 다다르시고, 우리의 온 존재를, 우리의 모든 악을 겪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고통과 죽음에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낮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 하시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고통 속으로 내려오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실패, 모든 이의 거부, 사랑하는 이의 배반, 하느님에 의한 버림받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혼의 최악의 상태를 겪으셨습니다. 당신의 육신 안에서 가장 가슴 아픈 우리의 모순을 경험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그 모순을 구제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에 다가와, 우리가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상처에, 모든 두려움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어떤 악도, 그 어떤 죄도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성지, 聖枝)는 십자 나무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 가지와 십자가는 함께 갑니다.

놀라움의 은총을 청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라움이 없다면 잿빛이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매일 놀라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놀라움을 잃는다면 귀머거리가 됩니다. 더이상 은총의 경이로움을 듣지 못하고, 더 이상 생명의 빵과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며, 더이상 형제들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선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번 성주간 동안, 놀라움의 은총을 받기 위해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놀라움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제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예수님에 의해 놀라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삶의 위대함은 소유하고 평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음을 발견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위대함이란, 사랑받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위대함은 바로 사랑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안에서 자신을 낮추신 하느님, 버려진 존재가 되신 전능하신 하느님을 봅니다. 그리고 놀라움의 은총을 통해 우리는 버림받은 이를 받아들이고,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다가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보잘것없는 이들 안에, 소외된 이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그리스도론)

성전에 들어섰을 때, 가장 처음 보이는 것은 제대 위로 중심을 잡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회심의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십자기를 보며 알 수 없는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큰 어려움을 겪거나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는 더욱 그렇지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만으로도 버티기 어려운데, 더욱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바쳐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르 8,31 참조) 이 언명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고통스러운 구원 계획을 알고 계셨으며, 이 사명을 당신 삶의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짜여진 계획이라면, 예수님은 그저 하느님의 계획을 이행하기만 하신 걸까요?

이러한 의구심은 이미 7세기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난이 예수님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신적 의지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인간적 의지를 부인하며, 단일한 신적 의지로 일축하는 이론을 ‘단의론’ (Monothelitism)이라고 합니다. 이 학설은 교회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위축시켰습니다. 이 혼란에 한 줄기 빛을 비춘 이는 증거자 막시무스(580-662 A.D.)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느님의 거룩한 의지에 완벽하게 동의하셨고, 이는 가장 자유로운 동참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육화와 수난의 첫 순간은 삼위 하느님의 신적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순종과 죽음은 바로 성자의 고유한 인간적 의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루카 22,42)

성부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 성자께서 수난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자께서도 자신의 고유한 인간적 의지를 신적 의지에 일치시키셨습니다. 이 일치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지야말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존귀하게 만드는 가장 내밀한 애정이 아닐까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이 담긴 십자가를요. 십자가는 죄의 결과나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순종이 일치함으로써 드러나는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이 두 분이 공통으로 원하신 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며 처음 가졌던 의구심의 답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지우신 것이 아님을, 지금까지 나의 십자가를 당신께서 대신 지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서울대교구,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성지(聖枝)는
'거룩한 나뭇가지'라는 뜻이며,
전통적으로 종려나무나
올리브나무 가지를 사용했지만,
사철 푸른 나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측백나무나
향나무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알아보고
환영한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곧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군중이 될 것임을
되새기는 계기로도 삼습니다.

그림_노주은(바오로딸콘텐츠)

공지 사항

1. 교구 성유 축성 미사 안내

3월 25일(월)에 St.Christopher Cathedral 에서 크리스토퍼 대주교님께서 집전하시는 성유 축성 미사가 있습니다.

- 일시: 3월 25일(월), 5:00PM
- 주소: St.Christopher Cathedral, 55 Franklin Street Forrest ACT 2603

2. 사순시기 본당 성주간 전례 안내

<한인성당 미사>

- 주님 만찬 미사: 3월 28일(목), 7:00PM
(미사 중 '발씻김 예식'이 있습니다.)
- 주님 부활 대축일 : 3월 31일(주일), 3:00PM

- * 아래 성 금요일과 파스카 성야는 로컬 성당과 함께 St.Matthew's Church, Page에서 봉헌됩니다.
- 성금요일 수난예식(영어): 3월 29일(금), 3:00PM
- 파스카 성야 미사(영어) : 3월 30일(토), 7:00PM

3. 부활대축일 세례식 안내

부활대축일 미사 중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나는 박서영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4. 교구 다문화 미사 (Multicultural Mass)

- 일시: 4월 7일(주일), 11:00AM
- 주소: St.Christopher Cathedral, 55 Franklin Street Forrest ACT 2603

- * 당일 오후 3시 한인 성당 미사는 없습니다.
- 미사 후 대성당 옆 '교구청 1층 홀'에서 간단한 다과 및 음료수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3월 10일	유아·청소년: 22명	성인: 55명
3월 17일	유아·청소년: 56명	성인: 21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3월 24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	------------------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3월 17일)	마르코반
다음주 (3월 24일)	마태오반

| 우리들의 정성 | (3월 16일 ~ 3월 22일)

봉 헌 금	\$355			
교 무 금	\$450			
김요한	김정수	손재호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주정자				

| 기도 지향 |

- *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을 위해
- *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 * 예비자교리 중인 박서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